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15(금) ~ 2023.09.21(목)

제공일시 2023 09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9.15(금) ~ 2023.09.21(목)

제공일시 2023 09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EU '탄소 국경세' 시행 이어 美 의회도 초당적 입법 추진...한국 철강업계 등 '비상'

- 유럽연합(EU)과 영국에 이어, 미국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시사 전문지 '타임'은 미 의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탄소 관세(carbon tariff) 부과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이번엔 새로 도입하려는 탄소 국경세 관련 입법에는 공화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타임이 전했다
-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탄소 국경세 도입을 지지하는 핵심 이유는 주요 탄소 배출국이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의 적대 국가들이기 때문임
- 미국이 탄소세를 강행하면, 중국 등과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발발할 위험도 있다고 '타임'이 강조했다

(글로벌이코노믹, 2023.09.18) 국기연 특파원

2. "탄소 배출 감소 위해 항공권 저가 경쟁 막아야"...佛, 가격 하한선 규정 추진

- 프랑스가 유럽 국가들 간 이동하는 항공권 가격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을 추진 중임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프랑스는 기후 변화에 대응해 탄소 배출 감소 등을 목표로 유럽 국가들을 오가는 항공권 가격에 하한선을 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음
- 이처럼 항공권 가격의 하한선이 정해지게 되면 저가항공사(LCC)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확실한 지지를 얻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EU 관리들은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포함한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이번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아울러, 프랑스 이전에도 오스트리아가 이 같은 최저 하한선 규정 방침을 추진했지만, 법적인 복잡성에 의해 무산된 바 있다고 했음

(뉴스1, 2023.09.20) 이유진 기자

3. 美 '중 반도체 가드레일' 발표 임박... 韓 기업 '촉각'

- 미국 정부가 조만간 대중 반도체 규제 가드레일(규정)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앞서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수령 기업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년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고, 중국 기업과의 공동 연구도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별도 심사를 받지 않고 중국 현지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수 있지만, 이러한 유예 기간은 다음달 10일 종료될 예정임
-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가드레일이 1년 연장이 아닌 장기적인 해법으로 제시될 가능성에 힘을 실고 있음
- 오는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 등이 예정되는데다, 미국은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를 경계 대상이 아닌 우방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가 꼽혔음

(대한경제, 2023.09.20) 한형용 기자

1. ESG 공시 1년 유예론 슬슬...외국인, 韓 기업 투자 회수하나 [선데이 머니카페]

- 2025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1년 유예론은 기본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4년까지 늦춰야 한다고 주장함
-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ESG 금융 추진단 소속 일부 기업·기관임원진과 비공개 오찬 자리를 통해 의견을 수렴, 정책적 결정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자의 주요 투자 지표 중 하나가 ESG인데, 공시 의무화 일정을 연기할 경우 국내 기업에 타격이 오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음
- 반면에 회계 업계에서는 “ESG 공시를 1년 유예해도, 당장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인데, 글로벌 ESG 공시의 주요 축 중 하나인 미국의 ESG 공시 기준 발표가 늦어지는 점도 당국의 속도 조절 배경 중 하나로 꼽힘

(서울경제, 2023.09.17) 서종갑 기자

2. 中 넘쳐나는 EV배터리 생산력 ESS로 전환시 韓기업들 타격 '불가피'

- 최근 전기차 증가세 둔화와 무분별한 진출 및 설비 증설로, 중국 배터리 업계가 생산력 과잉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중국은 자국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량이 1000~1200GWh 그치는 반면, 업계의 생산능력 확대 계획은 480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생산공정이 유사한 ESS 및 전기선박, 전기 경전철 등으로 사업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이것이 만약 현실화되면, 침체 국면에 있는 국내 ESS 시장에서 벗어나 최근 해외에서 판로를 모색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ESS 관련 기업들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남아도는 생산능력을 ESS로 재편해 확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음

(아시아타임즈, 2023.09.18) 홍윤기 기자

3. 韓이 쏘아올린 'CFE'...기업 부담 덜고 탄소중립·원전 세일즈 밀거름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원전, 수소를 포함한 CFE(무탄소에너지) 국제 플랫폼 'CF 연합'을 제안했음
- 이는 재생에너지에서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넓혀 RE100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만으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진단을 토대로, 전세계에 대안을 던진 것으로 풀이됨
- 정부는 CFE로 탄소중립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5월 민·관 주도 'CFE 포럼'을 발족하는 등 기반을 닦아 왔음
- CF연합은 크게 △CFE 투자 촉진 △CFE 이행·검증체계 및 국제표준 확립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 접근성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을 모색할 계획임

(머니투데이, 2023.09.21) 최민경 기자

(에너지경제, 2023.09.21) 여현우 기자

(이데일리, 2023.09.21) 박태진 기자

1. 美 가상발전소 시장 급성장 전망...테슬라, 시장 선점 박차

- 미국에서 발전 설비와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연계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전력 관리 시스템인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VPP)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코트라 미국 델러스무역관의 '미국, 우리집도 발전소가 되는 가상발전소에 주목'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공유틸리티위원회는 지난달 테슬라에 가정용 예비 전력 저장장치(ESS)인 파워월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개 가상발전소 승인을 내렸음
- 쉘은 2019년 독일 가정용 ESS 공급사인 소넨, 2021년 유럽 최대 가상발전소 운영사인 넥스트크라프트베르케를 연이어 인수하며 관련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SkyQuest)에 따르면, 세계 가상발전소 시장 규모는 2022년 64억7000만 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12.8% 성장해, 2030년에는 1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더구루, 2023.09.16) 홍성환 기자

2. 나스닥,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ESG 데이터 및 보고 솔루션 출시

- 나스닥은 지속 가능성 데이터 수집, 측정 및 보고 플랫폼인 나스닥 Metrio, 포트폴리오 영향 투명성 솔루션 eVestment ESG Analytics 등 기업과 투자자를 위한 두 가지 새로운 ESG 데이터 제품을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 지난해 나스닥은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ESG 보고 소프트웨어 제공업체 메트리오를 인수했음
- 새로운 플랫폼은 나스닥의 ESG 데이터 관리 솔루션 OneReport와 Metrio의 기술을 결합, 기업이 ESG 데이터를 수집, 측정,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하고 ESG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평가 기관, 감사인, 투자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Vestment ESG Analytics는 자산 관리자가 포트폴리오의 ESG 영향을 계량화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ESGToday, 2023.09.19) Mark Segal 기자

3. 셸, 충전기차 충전시장 본격 진출...BYD와 세계최대 충전소 운영

- 글로벌 거대 정유회사 셸(SHELL)이 중국 전기차 선두 업체 비야디(比亞迪·BYD)와 손잡고 중국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뛰어들었음
- 경제일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셸은 전날 중국 선전에 세운 전기차 충전소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음
- 선전 공항에서 2.5km 거리에 있는 이 충전소는 총 258개의 충전기를 갖춰, 단일 전기차 충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시범 운영 기간 하루 3천300여 대의 전기차가 충전한바 있음
- 건물 옥상에는 연간 30만 킬로와트시(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으며, 생산 전력은 전량 전기차 충전에 사용됨

(연합뉴스, 2023.09.20) 박종국 기자

1. SK에코, '美폐기물 1위' 업체와 비공개 회동...폐기물 사업 확대 나선다

- SK에코플랜트가 미국 1위 폐기물 기업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와 손잡고, 폐기물 에너지화·리사이클링 등 고부가가치 업스트림(Upstream) 사업 확대에 나섬
-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최근 방한한 제임스 피시(Jim Fish)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CEO를 비롯해 복수의 C레벨 경영진과 비공개로 회동했음
- 이번 만남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SK에코플랜트만 만난 것으로 파악됐음
- 업계 관계자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최근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사업 발굴 차원으로 해외 출장에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음

(서울경제, 2023.09.18) 김민경 기자

2. 시총 30대 기업 재생에너지 비중 10%대 불과... '0%대' 4곳 달해

- 국내 시총 30대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스경제가 국내 시총 30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27개사 가운데 18곳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공개했고, 지난해 이들의 소비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1.1%였음
- 30대 기업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56%)으로, 유일하게 50%를 넘겼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환율도 높은 편에 속했음
- 이들을 비롯해 비중 10%를 넘긴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11.7%) △LG화학(11.6%) △KT&G(11.1%) 등임
- 반면, 삼성SDI·LG전자 등 11개사는 전환율 10%도 안됐고, 반도체·배터리 제조 기업들을 제외하면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5.5%에 불과했고 특히, 0%대를 기록한 기업은 4곳으로 확인됐음

(한스경제, 2023.09.19) 정라진 기자

3. "인도네시아 'CCS 사업' 박차... 찰레곤 폐가스전 활용한다 [포스코, 인니 공략]"

- 포스코가 '글로벌 에너지기업' 및 '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와 손잡고 CCS(Carbon Capture Storage·탄소포집저장) 사업을 추진함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영위하고 있는 철강사업의 보폭을 넓히는 것과 더불어, 향후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의 작업임
-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다국적 에너지기업 '엑손모빌(Exxon Mobil)', 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와 이르면 내달부터 CCS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임
-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제철기업 '크라카타우 스틸(PT.Krakatau Steel)'의 합작사인 '크라카타우 포스코(PT.KRAKATAU POSCO-이하 KP)'가 철강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폐가스전에 저장하는 것이 골자임
- 포스코는 협업관계를 통해, 약 7년 후인 오는 2030년부터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폐유전 및 가스전에 보관하는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헤럴드경제, 2023.09.19) 김성우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9.15(금) ~ 2023.09.21(목)

제공일시 2023 09 29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TNFD 최종 권고안 발표... CDP, GSK는 TNFD 프레임워크를 즉각 수용

- 자연자본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가 19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종 권고안은 뉴욕 기후 주간(New York Climate Week)의 일환으로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업, 금융, 정부 등에 소속된 250명이 넘는 글로벌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됐음
- TNFD는 지난 4월, 최종 초안의 내용을 공개한 이후 블랙록(BlackRock), HSBC, 타타스틸(Tata Steel), UBS그룹 등 20조달러(약 2경6600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업들을 대표하는 40명의 TNFD 위원들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60개국의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인 의견을 교류해왔음
- 이번 최종 권고안은 기존 또는 새로운 IFRS, GRI 표준과 일치하며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요구 사항과도 일치한다고 TNFD는 전했다
- TNFD의 14가지 공개 사항과 추가 구현 지침은 자연과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전 세계 비즈니스 및 금융 분야의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발표됐음
- 기후와 자연 관련 위험의 연관성은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음. TNFD 프로세스에 정보를 제공한 S&P 글로벌 서스테이너블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 최대 기업의 약 85%가 자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농업, 관광, 부동산, 의류, 화학, 건설 산업은 자연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음
- 실제로 세계은행(WB)은 수분 작용, 나무와 이탄지의 탄소 흡수 등 기능을 지닌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면 2030년 전 세계 GDP가 2조7000억달러(약 3591조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투자자, 자산 운용사 및 주요 글로벌 기업은 모두 자연 관련 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자연 손실을 해결하고 자연 기반 솔루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부문 참여 및 금융 동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음
- CDP는 새로 발표된 TNFD 프레임워크를 시스템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CDP의 최고 임팩트 책임자(Chief Impact Officer)인 니콜렛 바틀렛(Nicolette Bartlett)은 “CDP는 자연의 핵심 요소인 숲과 물에 대한 공개 시스템을 10년 넘게 운영해 왔다”라며 “CDP 설문지의 질문은 TNFD 프레임워크의 측정항목과 일치한다. 또한 TNFD는 CDP가 확장하기로 약속한 해양과 같은 주요 영역도 다룬다. TNFD 프레임워크를 통해 CDP는 해양 및 육지와 같은 영역에 대한 강력한 모범 사례 지표를 세트로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환경 주제의 통합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글로벌 제약기업인 GSK는 “2025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첫 번째 TNFD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음
- 홍콩에 본사를 둔 부동산 기업 태고부동산(Swire Properties) 역시 TNFD 공개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음. 다른 기업들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비슷한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됨
- 한편, TNFD는 2024년 1월, 다보스에서 열릴 세계경제포럼에서 권고안을 채택한 기업의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팩트는, 2023.09.20) 유미지 기자